

로컬뉴스

군산 옥구읍 공공도서관 건립 추진

군산시가 옥구읍 지역에 공공도서관 건립을 추진한다.

옥구읍 도서관 건립은 도심의 규모가 확대되며 공공도서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한편 지역내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많은 시민들이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부지로는 옥구읍 게이트볼장 인근으로 검토 중이며 건물을 신축해 2018년 이후 개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국비 15억 원을 확보 중이다.

또한 성산면 작은도서관도 2017년 개관할 계획이다.

성산면사무소 옆 옛 보건지소 건물을 리모델링해 조성될 예정이며 현재 국비 7000만 원을 확보했고 나머지 예산 7000만 원은 시비로 확보할 계획이다.

/군산=문정곤기자



전북향토기업 '제일건설'

익산평화·어양 오투그란데 인기

'전북주택 오픈 소문내기 이벤트' 진행 1차에서 분양 끝날 듯

전북대표 향토기업이자 아파트 건설로 전국명성을 떨쳐온 (주)제일건설이 익산시민의 여유로운 삶을 위한 프리미엄 '오투그란데' 아파트 견본주택 오픈식을 지난 4일 오전 10시30분 인신인해를 이룬 방문객들로 넘쳐나는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했다.

익산시 평화동 제일아파트 옆 무네미 마을에 들어설 '평화-제일오투그란데'는 전용면적 76㎡형 54세대, 84㎡형 117세대로 이뤄졌고, 어양동 동도미소드림 인근에 세워질 '어양-제일오투그란데'는 84㎡ 단독형 55세대로 총 228세대를 분양한다.

제일건설은 지난 4일 인화사거리에서 평화·어양 오투그란데 견본주택을 오픈하고, 분양에 들어가며 홈페이지에서 '전북주택 오픈 소문내기 이벤트'가 진행 중인데 인파가 몰려 1차에서 분양이 끝날 전망이다.

평화, 어양 오투그란데는 제일건설

브랜드에 걸맞게 전 세대 남향배치와 4BAY 판상형 평면으로 구성되며 고품질 마감재를 사용할 뿐 아니라 미입 '오투그란데' 아파트 견본주택 오픈식을 지난 4일 오전 10시30분 인신인해를 이룬 방문객들로 넘쳐나는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했다.

익산시 평화동 제일아파트 옆 무네미 마을에 들어설 '평화-제일오투그란데'는 전용면적 76㎡형 54세대, 84㎡형 117세대로 이뤄졌고, 어양동 동도미소드림 인근에 세워질 '어양-제일오투그란데'는 84㎡ 단독형 55세대로 총 228세대를 분양한다.

제일건설은 지난 4일 인화사거리에서 평화·어양 오투그란데 견본주택을 오픈하고, 분양에 들어가며 홈페이지에서 '전북주택 오픈 소문내기 이벤트'가 진행 중인데 인파가 몰려 1차에서 분양이 끝날 전망이다.

평화, 어양 오투그란데는 제일건설

대 주부들의 선망의 지역이다.

제일건설은 '전북대표 향토기업'으로 30여년 간 총 3만여 가구 아파트를 공급했으며, 윤여용 회장은 훈산학회 설립과 무수한 장학금 지급으로 후진양성에 기여했고 해마다 구정과 추석에 전주·익산·군산 등지 시민들을 위해 엄청난 쌀을 무상공급해 왔다.

또한 2009년 주택건설의 날 기념 '대한민국 금탑산업훈장(대통령)', 2013년 '살기 좋은 아파트상', 2014년 '대한민국 친환경 경영대상'을 받았고, 올해는 '한국을 빛낸 창조경영대상'을 수상한 한 주택건설의 명가다.

제일건설 관계자는 '익산시는 세대수가 2008년 11만4천197가구에서 2015년 12만2천857가구로 늘어나 아파트 수요가 부족하다. 내년 예정된 입주물량이 없어 오투그란데는 높은 분양성격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경찰서, 공·폐가 집중점검

군산경찰서가 수능을 앞두고 관내 공·폐가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청소년들의 탈선과 각종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밀집지역 등에 대해 탈선 장소로 활용될 수 없도록 사전 차단하고자 실시했다.

군산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군산관내 공·폐가는 120개소로 조사됐다.

이에 경찰은 탈선 청소년들의 출입우려가 있는 공·폐가에 대해서 범행 후 도피처로 사용하거나 범죄 장소로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주기적으로 정확히 공·폐가 현황을 파악하고 나섰다.

특히 범죄우려가 있는 공·폐가에 대해서 출입금지 표지판을 부착하고 경보기를 설치하는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없도록 사전에 예방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불안은 불식시키는 예방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시-서천군, 체육교류전 개최

군산시와 서천군이 화합의 체육교류전을 개최했다.

지난 5일 군산-서천 통합과 화합, 그리고 긴밀한 행정협력체계 구축의 계기와 발전을 마련하고자 양 시·군 민간 체육교류전이 군산월명체육관 및 보조구장에서 개최됐다.

올해 처음으로 치러진 이번 교류전은 축구·야구·탁구·배드민턴·줄리·테니스·배구 등 7개 종목에 150여명의 선수 및 임원이 참여했다.

이번 교류전을 통해 양 시·군은 생활체육 발전 및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고 양 지자체의 민간인간 동질감을 형성하고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군산시 관계자는 "앞으로 양시군은 대화추진을 통해 더욱 활발한 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더 나아가 중요현안에 대해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국화축제장 방문 관계공무원 격려

익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원들이 지난 4일 중앙체육공원에서 열리고 있는 천만송이 국화축제장을 방문하여 현장을 돌아보고 자원봉사자와 관계공무원을 위로·격려했다.

이날 산업건설위원회 의원들은 지난날 28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다양한 공연이 열리고 있는 행사장과 각종 국화꽃이 전시된 전시장을 두루 살펴보고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과 축제가 성공리에 끝날 수 있기를 당부했다.

김연식 위원장은 "올해 천만송이 국화축제는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품격 있는 공연들이 이어지고 있어 그 어느 해보다 우수한 축제가 되고 있다"고 관계 직원들과 봉사자들을 격려했으며, 산업건설위원회는 관람객 중심의 다양한 이벤트 공연으로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가 전국에서 제일 으뜸가는 국화축제라고 인식되고 있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익산을 홍보하는 큰 행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라고 입을 모았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 관광객 200만 시대 관광홍보 마케팅 추진

군산휴게소와 '관광 홍보 업무협약 체결·근대 관광 10선 야간조명 시설 설치 등

근대문화관광도시로 전국적인 명성을 떨치고 있는 군산시가 연중 지속적인 관광마케팅을 전개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군산시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현재 군산을 찾은 유료관광객은 160만명을 넘어섰으며, 무료 관광객을 더하면 200만 관광객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다. 시는 이러한 기세를 살려 군산관광의 위상을 확대하고 2016년 군산방문 관광객 200만 시대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관광홍보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우선 지난 5월 한국도로공사·군산휴게소와 함께 군산 관광자원 홍보를 위한 '군산관광 홍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군산휴게소를 이용한 관광홍보 콘텐츠를 마련하고 휴게소

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군산의 관광 자원에 대한 깊은 인상을 남겨 재방문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시는 휴게소 내 '군산관광 테마공원을 조성해 포토존과 군산관광 상징물 조성 등 관광객이 군산관광의 에고그램을 본 것 같은 느낌을 받도록 연내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광 콘텐츠 확대 개발을 위해 지난 6월부터 군산보의 고유한 이야기 자원을 수집하고 각색하는 스토리텔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과 연계해 '군산 근대 관광 10선'을 선정, 스토리가 있는 야간 조 명시설을 설치했다.

근대관광 10선으로 580여명의 시민 선호도 조사 등을 거쳐 근대역사박물관, 히로쓰가옥, 월명공원, 진포해양

테마공원, 동국사, 군산세관, 초원사진관, 해마굴, 근대미술관, 고우당을 선정했다.

특히 '근대 관광 10선' 야간조명 시설은 2016 군산시민여행축제 기간 동안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으며, 10선의 스토리를 따라 근대로의 시간 여행을 떠나는 재미가 출몰하는 관광객들의 긍정적 평가가 이어졌다.

김성우 관광진흥과장은 "관광산업은 골목 없는 황금산업이라는 말처럼 보이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해 높은 부가가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만큼, 향후 고군산연결도로 완전 개통에 따른 관광객 유입에 대비하고 군산보의 고유한 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콘텐츠 개발을 모색하는 등 관광마케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 천만송이국화축제 성료

지난 10월 28일부터 이날 6일까지 10일간 익산중앙체육공원에서 열린 제13회 익산천만송이 국화축제가 폐막 당일까지 가을정취를 만끽하려는 관람객들의 발길로 북새통을 이루며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이번 축제에는 전국 각지에서 67만명의 관람객이 방문했다.

올해 국화축제의 성공요인은 전국적으로 방송 SNS 등 홍보가 잘 이루어졌고 개막식에 맞춘 개회식이 조질 및 LED 야간경관조성, 10일 동안 맑은 날씨도 도움이 됐다.

특히 백제왕도 익산, 행복 익산, 희망익산을 미륵사지석탑, 백제왕도문, 황금쌍용, 봉황, 행복나무, 피라미드, KTX,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대형 국화조형물의 스토리텔링화로 익산의 과

거, 현재, 미래를 표현해 관람객에게 익산의 문화유산을 알리고 행복하고 희망이 있는 익산을 홍보하는 새로운 이미지의 축제로 찬사를 받았다.

또한 국화축제 특별전시관의 전시방법을 차별화하여 5개관으로 나눠 특색 있게 전시해 관람객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했다.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는 민간군이 함께 준비하는 축제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에서 작품기획부터 재배, 화훼농가는 계약재배를 통해 전시용 화분국을 생산 전시하고, 육군부사관학교의 도움을 얻어 국화수송을 진행 하므로써 예산을 절감했다.

관광객 측면과 경제적 파급효과는 18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항 아적장 포장공사 준공

군산항 아적장 포장공사가 준공돼 환적차량 유치 활성화가 기대된다.

4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5월 20일 착공한 군산항 아적장 포장공사가 준공되어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군산항내 부족한 환적차량 유치 확보를 위해 사업비 50여 원을 투입, 자동차 부두와 컨테이너부두 사이 구간을 자동차 아적장으로 조성했다.

그동안 군산항은 아적장 부족으로 환적차량 처리에 제한이 있어 왔으나 이번 아적장 포장공사 준공으로 약 5만㎡의 신규 아적장이 확보됐다.

이에 따라 약 2천대의 자동차를 추가 유치할 수 있게 되었으며, 환적차량 유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군산=문정곤기자

'EY 최우수 기업가상' 최고상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 선정

비즈니스 분야의 오스카상으로 불리는 세계적 권위의 '2016 EY 최우수 기업가상' 최고상에 하림그룹 김홍국 회장이 선정됐다.

전통의 EY 최우수 기업가상을 국내에 도입 올해 10번째 최고 기업가상을 배출한 EY한국은 11월 3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수상자 및 수상자 가족, 심사위원, 과거 수상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상식을 열고 김홍국 회장을 비롯한 6명의 기업가에게 최우수 기업가상을 시상했다.

EY 최우수 기업가상은 독립적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위원장 권오규 카이스트 금융전문대학원 교수)이 약 6개월에 걸쳐 ▲기업가 정신 ▲재무성과 ▲전략적 방향 ▲국내 및 세계적 영향력 ▲개인적 품성 및 사회적 기여도 등 6가지 항목을 객관적인 관련 자료와 현장실사 등을 통해 평가하여 매년 각 분야 최고 기업가를 선정함으로써 그 권위를 높이 인정받고 있다.

이날 시상식에서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은 어린 시절 병아리 10마리를 키우면서 시작한 사업을 자선 10조원의 Food & Agribusiness 그룹으로 성장시킨 탁월한 기업가로 안주하지 않는 도전정신과 미래지향적인 사업전략 등 기업가 정신의 모범사례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날 시상식에서 김홍국 회장은 "성공한 사업가 보다는 도전하고 전진하는 기업인을 찾아 격려하는 EY 최우수 기업가상을 수상하게 되어 큰 영광이라며 "안주하지 않고 끝없이 도전하는 기업가의 길을 걷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 대야면, 저장강박증 가정주거환경정비 실시

군산시 대야면은 지난 4일 집안 가 특히 쓰레기를 쌓아 놓는 증세인 이른바 저장강박증이 있는 저소득층 가정 정을 찾아 주거환경정비를 실시했다.

이들 가정이 거주하는 마을 이장은 이들의 주거환경이 위험하다고 판단 도움을 줄 방법을 강구한 끝에 자생단체들과 협의를 통해 집안에 쌓여 있는 쓰레기들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날 주거환경정비는 대야면 새마을협의회와 이장단 주민자치위원 등 40여명이 참여해 집안에 있는 쓰레기 5톤가량을 수거했다.

또한 주택 주변에 잡초들이 무성하고 집안에 쓰레기가 산적해 있어 해충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군산시 보건소의 협조로 주택 내·외

부 방역을 실시해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했다.

이와 함께 군산시 희망복지지원단은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대상자의 개인 위생을 위해 이발사와 연계해 단정한 외모를 갖출 수 있도록 도왔으며, 앞으로도 공공과 민간자원을 연계해 다양한 욕구를 해결해 사회적 기능을 회복하도록 도울 예정이다.

김석근 대야면장은 "지역내 자생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도움의 손길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각종 자원연계를 통해 다양한 복지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에게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농기센터, 귀농·귀촌교육과정 수료식

군산농기센터(소장 고종원)는 지난 3일 '2016년 귀농·귀촌 교육과정'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료식에는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교육생 80여명에 대해 수료증과 이수증이 수여됐으며, 교육기간 중 자치활동에서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한 김동우 씨 외 3명에게는 공로상이 수여됐다.

2016 귀농·귀촌 교육과정은 지난 8월 2일 개강해 11월 3일까지 등급에 따라 기초반, 전문반으로 나눠 농업·농촌의 이해와 군산시 귀농정책 설명, 수도작·원예·특용작물 등 작목별 재배방법, 농기계 교육, 회계·

유통 등 농가운영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이론 강의와 영농현장이 접목된 다양한 학습과정으로 꾸며졌다.

전문반 김동우 회장은 "성공 귀농인 사례 교육, 농산물 유통시설 견학, 우수 귀농농가 벤치마킹 등 농업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체험할 수 있는 현장 교육을 통해 귀농인들이 느낄 막연한 두려움 대신 자신감을 충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전했다.

고종원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철저한 자기관리로 시일이 살아나는데 근본이 되는 농업을 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시자원봉사센터 '대학생 자원봉사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사)군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채정룡)는 지난 4일 대학생 80여명과 함께 '대학생 자원봉사 활성화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대학생 자원봉사 활성화 프로그램은 대학생들의 자원봉사활동을 개발·연계·지원해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기획된 것으로 이번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통해 자원봉사 활성화에 앞장서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

이날 군산시자원봉사센터는 군산대학교, 군산대, 군산간호대, 원광대학교 등 80여명의 학생들과 함께

옥구읍 삼학동 신흥동 등 총 23세대에 5600여장의 연탄을 전달했다.

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은 연탄 나눔 봉사활동과 주변 환경정화 활동을 하는 등 알차고 보람된 시간을 보냈다.

채정룡 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은 "대학생들의 따뜻한 마음이 연탄을 통해 잘 전달될 바라며, 대학생들이 자원봉사에 대한 건전한 사고를 가진 가슴 따뜻한 봉사자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주역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기자